“베트남불자 신행, 한국서 원만하길”

태고종 전북종무원–참좋은우리절 합동법회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과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10월 6일 베트남 닥락성 보명사 주지 팃치민 스님을 초청해 한국과 베트남 합동 관정수기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된 108참회 기도염송으로 시작된 합동 관정수기 대법회는 진성 스님과 회일 스님, 군산불교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 태고종 전북종회의장 법전 스님, 부원장 도홍 스님 등 스님들과 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 스님, 한국과 베트남 불자 4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관정수기 법회는 한국과 베트남 스님들이 각각 상대방 국가의 불자들의 이마에 감로수를 뿌리며 성불을 기원했다.

회일 스님은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오늘 법회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 돕는 사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팃치민 스님은 “성대한 법회를 마련해준 진성 스님과 회일 스님께 감사드리며 베트남 불자들도 열심히 수행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성 스님은 “우리 모두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참좋은우리절은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시생 합격 묵묵히 도운 천불정사

올해 행정고시 합격생 2명, 감사 인사 전해

부산 인재불사도량인 천불정사에 행정고시 합격자가 방문했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다.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10월 5일 경내에서 행정고시 합격자를 위한 축하연을 개최했다. 천불정사는 부산대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신목 고담정에 특별 후원해왔다. 신목 고담정은 사회과학대 내 5급 국가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습공간 신목정으로 활용됐으나 고담 스님이 2006년 기숙사와 학습공간을 제공하면서 신목 고담정으로 변경됐다.

올해에는 이영민(29 · 무역학과) 학생과 이형경(31 ·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시험에 합격했다. 이들은 “도움을 주신 스님과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고담 스님은 “종교와 상관없이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을 위해 후원하는 기쁨이 크다. 합격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불정사는 현재 고시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무료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현재 5명은 사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사찰 앞에 위치한 단독 주택에는 12명이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불교, 제29회 山海原 후보자 공모

11월 8일 공모 마감 ‘10년 이상 전문 활동경력자’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오는 11월 8일까지 제29회 (향기로운)산해원문화상 후보를 공모한다. 시상 부문은 문학상, 예술상, 언론상, 행원상(지역개발)이다. 후보자 자격은 경남도내에 거주하고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전문 활동경력을 가진 문화예술인, 언론인, 사회봉사자 등이다.

산해원(山海原)문화상은 불교와 향토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예술 · 언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창원지역불교계가 지난 1991년 제정했다. 산해원 명칭은 통합 창원시 이전의 마산, 진해, 창원의 끝 자를 합친 것이다.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9일 오후 6시 30분 창원풀만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055)222-1393 성낙두 경남지사장

신라 대국통 자장율사 지계 잇다

통도사, 개산 1374년 영고재 및 법요식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 1374년을 맞아 산문을 연 신라 대국통 자장율사의 지계 정신을 되새기며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통도사는 아울러 영축문화축제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통불교문화의 향연을 개최했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10월 7일 해장보각에서 영고재를 봉행했다. 영고재는 개산조 자장율사의 창건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올리는 재이며, 해장보각에는 자장율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영산재에서 방장 성파 스님과 주지 현문 스님은 향과 차를 올렸고, 대중스님들과 불자 1000여 명이 우중에도 자리를 지키며 자장율사의 수행정신을 기렸다.

통도사는 이어 설법전에서 개산대재 법요식을 진행했다. 개산대재에는 김일권 양산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해 통도사의 창건을 축하했다. 특히 통도사는 매년 개산법요식에서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해왔다. 올해는 해외유학생 1명, 박사 7명, 석사 11명, 학사 17명, 율원 · 학림 · 승가대학원 20명, 강원 4명 등 60명에게 총 5410만원을 장학금으로 수여했다.

행사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대중스님들의 사진전 ‘나도 작가다’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양산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주창돈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3명에게 공로패가 주어졌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이 법회는 해동 화엄의 초조이시며 신라 대국통이신 자장율사의 높은 뜻을 기리고 찬탄하기 위해 봉행한다”며 “통도사는 국지대찰 불지종가로서 청정지계의 빛나는 수행가풍을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귀의처가 되고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이름에 그 빛을 더해가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雨中 1000여 사부대중 운집해
자장율사 수행정신 깊이 기려
스님들 장학금 5410만원 수여
각종 부대행사 축제의 장 마련

통도사는 법요식에 앞서 영축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7일에는 통도사를 빛으로 장엄하는 ‘LIGHT UP 축제’가 시작됐다. 야간 조명 축제 ‘LIGHT UP’을 위해 통도사 진입로인 무풍한송로부터 성보박물관까지 1.5㎞ 구간에 LED 조명 1080개가 설치됐다. ‘LIGHT UP 축제’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 1374년을 맞아 영고재와 법요식을 개최하고 개산조 자장율사의 정신을 되새겼다. 사진은 방장 성파 스님이 향을 올리는 모습.

이외에도 대중스님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나도 작가다’ 사진전과 4인 4색 특별도자기전도 명월료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화장엄과 괘불조성체험, 월저 선생 기증 유물전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다.

한편, 통도사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과 10월 11일 통도사 종무소에서 협약식을 거행했다. 앞으로 통도사와 사업단은 사찰역사 자료 수집, 정리와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통도사는 “이번 협약은 통도사 사지 자료 조사, 촬영, 번역, 역주 사업을 위한 것이다. 통도사의 문화유산을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신자나 대중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통도사 영축문화연구원의 첫 사업활동”이라고 밝혔다.

통도사의 사지 관련 자료는 약 300종 정도로 추정되며 1600년대부터 근현대 자료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통도사는 “통도사의 기록문화유산은 오랜 역사와 비중만큼이나 다양하고 방대해 조사와 활용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불교기록문화의 발굴과 활용에 능통한 다수의 전문가가 있는 사업단에서 통도사의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현대화하는 데 앞장서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에 담아낸 빛고을 불교문화

광주불교연합회 사진기획단
3년간 성과 전시, 대중 공개

광주지역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첫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우영갤러리에서 ‘제1회 광주불교문화 사진전시회’를 열고, 지역의 다양한 불교문화를 사진으로 담은 작품을 대중에 선보였다. 연합회 사진문화기획단(단장 무등)이 주관한 전시회는 사찰 문화재, 전경, 스님 인물, 보도사진 등 지역의 다양한 불교 구성요소를 담은 총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큰 호응을 얻었다.

7일 기념식은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단장 무등 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의 사부대중과 선종백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10월 7일 우영갤러리에서 열린 광주불교연합회 사진문화기획단의 제1회 광주불교문화 사진전시회 기념식.

동현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날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사진이고, 사진에 투영된 산사의 모습은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사진은 단순히 현상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좋은 도구”라고 사진의 중요성과 작가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광주불교연합회 사진문화기획단은 ‘내 사찰은 내가 기록한다’는 의미를 담아 각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광주불교를 기록할 사진활동가를 양성해왔다. 2015년 11월 사진문화기획단 발족 이후 2016년 4월부터 이론 강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윤혜숙 사진작가의 지도 아래 지난 3년간 매월 정기 출사와 특별촬영을 통해 작품 활동과 지역 불교문화를 사진에 담아 이날 첫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다.

기념식에서 윤혜숙 작가는 봉행사에 이어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시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활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불교문화도 더욱 창달하는 토대가 되길 기원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참여한 많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생애 첫 합동 전시회를 경험한 김광수(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불자는 “막상 우리들 전시회를 갖는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혜숙 작가와 회원들이 힘을 다해 준비하면서 자긍심과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빛고을관등회의 행사로 진행된 광주불교문화 사진전시회는 앞으로 매년 개최할 계획이며, 참여한 활동가들은 소속된 각 사찰과 단체에서도 촬영을 진행해 불교문화 포교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